

지명의 힘: 키이우와 튀르키예



주 성 재
교수 · 지리학

알려진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지명 두 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침없이 사용되는 듯하다. 키이우와 튀르키예 이야기다. 오히려 이 이름 대신 ‘키예프’와 ‘터키’를 쓰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개념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느낌이다.

두 지명 모두 해당 국가의 정부가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어 Київ를 한국어로 읽은 것이고 로마자로는 Kyiv로 표기한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요청한 것은 ‘크이우’였는데,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키이우’로 받아들여졌다. 이전에 사용되던 ‘키예프(영어로는 Kiev)’는 러시아어 Киев를 읽어 표기한 것이었고(이를 외래지명 *exonym*이라 함), 따라서 러시아의 유산으로 보아 마땅했다.

터키는 영어 Turkey를 한국어로 읽어 표기했다. 터키어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Turk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Türkiye*인데(이를 토착지명 *endonym*이라 함), 영어에서 읽기 쉬운 형태 Turkey로 정착됐고,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어 지명에서도 자연스럽게 ‘터키’로 불리게 된 것이다. 터키 정부는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름 *Türkiye*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고, 이것은 영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어 표기는 ‘튀르키예’다.

지명 변경 요청의 두 사례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관찰 포인트는 언어의 의미와 상징성이다. 지명에 담긴 문화와 정체성은 그 언어를 통해 표출된다. 두 나라는 모두 자국의 언어로 된 지명을 존중받기 원했다(‘키이우’나 ‘튀르키예’와 같이 다른 언어로 전환된 것을 모두 포함해). 그들의 언어로 된 이름이라야 수백 년, 수천 년, 그 이름과 함께 쌓아온 문화와 정체성, 기억과 상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을 공격하는 적의 언어로 된 지명 ‘키예프’는 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지명의 문자적 의미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언어의 중요한 요소다. ‘튀르키예’로의 변경 요청 이면에



인간의 인식 변화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어떤 지명이 바뀔 수는 있으나, 그 지명 자체는 순수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다.

(사진=픽사베이)

“

지명은 한편으로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수용체로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성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가히 지명의 힘이라 할 만하다.

”

는 ‘터키’가 갖는 원치 않는 이미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어 Turkey에는 칠면조 이외에 ‘실패작,’ ‘재난’과 같은 부정적 의미가 담겨있어 국가 브랜드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몽고(蒙古)’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몽골 정부의 요청은 지명어의 의미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다. 몽고의 한자어에 “어리석고 우매하다”는 뜻이 담겨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1990년 몽골과의 수교를 앞두고 있던 한국 정부는 서둘러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새 이름 ‘몽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언론과 교육매체로 확산했다. 그러나 이 이름의 원조격인 중국어 표기는 여전히 ‘蒙古’다.

지명 변경 요청에 대한 반응은 받아들이는 언어(이를 수용언어 *receiver language*라 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수용언어 한국어에서 두 지명의 채택이 매우 빨리 이루어진 것은(키이우는 2022년 3월, 튀르키예는 6월, 국립국어원 심의에 의해 사용 결정됨) 그 수용성 때문이었다. 우선 러시아어와 영어에서 기원한 외래지명을 유지하려는 관

성이 크지 않았다. 지명은 한번 채택되면 지속성을 갖고 사용되면서 정체성을 쌓아가는데, ‘키예프’는 아직 이 정도의 단계에 들어와 있지 못했다. ‘터키’는 사용 역사가 짧지 않지만, 토착 지명 ‘튀르키예’의 설득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우수한 문자 한글은 새 지명을 원래의 음성대로 무리 없이 표기할 수 있게 해줬다.

두 번째 중요한 관찰의 초점은 지명 제정(또는 제안)과 사용에 담긴 정치성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식 외래지명 대신 자국의 토착 지명 사용을 세계에 요청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결집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1990년대부터 요청한 Kyiv가 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각 언어권의 지지를 받게 됐고, 각 나라는 마치 챌린지를 수행하듯 이 이름을 수용했다. 수용언어의 반응 역시 정치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튀르키예로의 변경은 “전통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이름의 복원,” “새로운 국가 브랜딩”이라는 가치로 진행됐지만, 그 이면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년째 집권하고 있는 그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세를 반전시키려는 시도로 국가 정체성 세우기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최근 보도는 현지인의 반응이 “자국어 이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환영과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으로 갈렸다고 전한다(조선일보, 2022. 8. 20).

이와 같이 지명은 한편으로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수용체로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성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가히 지명의 힘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지명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터키’와 ‘키예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장소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매우 소중한 존재다. 인간의 인식 변화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어떤 지명이 바뀔 수는 있으나, 그 지명 자체는 순수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니 우연히 ‘터키’나 ‘키예프’를 만나도 비난하지 말자. 지명은 죄가 없다.